

# 信의 現代的 意義

李 恒 寧 \*

目 次	
I. 머리말	(附 : 鄭大珍 前 理事長의 信觀)
II. 儒敎에서의 信	VI. 法律과 信
III. 基督敎에서의 信	1. 憲法上의 信
IV. 水雲과 信	2. 民法上의 信
V. 甌山과 信	VII. 信의 現代的 意義
1. 大巡眞理會 要覽에서의 信	1. 人間의 善良性의 回復
2. 大巡指針에서의 信	2. 社會의 連帶性의 強化
3. 典經에서의 信	3. 宇宙의 神聖性의 確認

## I . 머리말

지금까지 3요체 가운데 성과 경에 대하여 고찰했다. 이제 3요체의 마지막 인 신에 대해서 생각해보고자 한다. 성은 마음의 진실로서 하늘이나 신명이나 진리나 진실에 대한 간절한 갈구이다. 그러므로 정성은 하늘의 도(天道)이다. 마음속에 정성이 들어있으면 그것이 몸에 나타나서 다른 사람과의 만남에 있어서 공경이 된다. 그러므로 공경은 사람의 길(人道)이다. 사람은 땅 위에서 한사람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과의 만남에서 사회를 이루고 일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신의가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신의는 땅의 길(地道) 또는 사회의 길이다. 정성이 없으면 하늘이나 진리에 가까이 갈 수 없고 공경이 없으면 사람을 대할 수 없고 신의가 없으면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다. 정성의 천도가 공경의 인도로 나타나고 다시 신의의 지도로 나타

\* 홍익대 명예교수, 법학박사

나는데 천지인이 원래 별개의 것이 아니라 일체를 이루듯이 성경신도 본래 별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를 이룬다. 정성이 있으면 곧 공경하게 되고 공경하게 되면 곧 신의가 이루어진다. 정성 없는 공경은 공경이 아니요 공경없는 신의는 신의가 아니다. 성경신의 3요체를 본래 하나이지만 보는 각도가 다를 뿐이다.

정성스러운 것은 하늘 즉 자연의 길이요 공경스러운 것은 사람 즉 인간의 길이요 신의 있음은 땅 즉 사회의 길인데 천지인이 원래 일체이기 때문에 성경신도 일체를 이룰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정성스러운 사람치고 공경스럽지 않은 사람이 없고 공경스러운 사람치고 신의가 없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만약에 정성스럽기는 하나 공경이 모자란다고 하면은 아직도 정성이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이요 또 공경을 다하였으나 신의가 부족하다고 하면 그 사람은 공경을 다하지 못한 사람이다. 또 신의를 다하였는데 아직도 정성이 모자란다고 하면 그 사람은 아직도 신의를 다하지 못한 것이다.

한자(漢字)의 믿을 신(信)자는 사람 인(人)변에 말씀 언(言)을 합쳐서 만든 글자이다. 이는 사람이 말과 같다는 뜻인데 「진실」을 나타낸다. 사람이 말대로 하지 않고 말과 다른 것을 일부러 꾸며 만들면 그것은 진실이 아니라 「거짓」이다. 그러므로 한자의 거짓 위(僞)자는 사람인변(亻)에 하위(爲)를 합쳐서 만들었는데 사람이 말대로 하면 진실이요 사람이 말과 다른 행동을 일부러 꾸며서 하면 거짓이 된다.

믿는다는 것은 꼭 그렇게 여겨서 의심하지 않는 것이다. 믿음은 마음으로 생기며 마음의 깊은 곳에서 우러난 믿음일수록 강하다. 믿음의 대상은 우주의 절대자인 하느님을 믿는 종교적 신앙(信仰)으로부터 자기자신을 믿는 자신(自信) 신념(信念) 상대방을 믿는 신임(信任) 신뢰(信賴) 신용(信用) 등에서 널리 사회의 선의를 믿는 신의(信義) 신망(信望) 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믿음이 굳으면 어떠한 장애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의 믿음을 관철하기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수도 있다. 믿음 가운데 우주의 절대자를 믿는 신앙은 가장 마음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은 정성과 같다. 또 자기 자신을 믿는 경우에도 덮어놓고 자기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양심에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믿기 때문에 깊은 자신은 절

대자를 믿는 신앙과도 통한다. 또 사회생활에서 남을 믿고 사는 것은 그 믿음으로 사회가 하나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사회생활 가운데 문화생활에 있어서는 신뢰(信賴)라는 말을 많이 쓰고 경제생활 하는데는 신용(信用)이란 말을 많이 쓰고 정치생활에는 신임(信任)이란 말을 많이 쓰지만 우리의 언어 생활에서 큰 차이는 없다.

정성은 공경을 낳고 공경은 신의를 낳는데 신앙이나 신념이나 신의는 다시 정성으로 회귀한다. 정성이라는 것은 거짓이 아니고 진실을 말하는 것인데 진실은 옳은 것이므로 신의(信義)라는 말에는 옳을 의(義)가 붙어있다. 그리고 신의라고 하는 말에 다시 성실(誠實)이란 말을 부쳐서 신의 성실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성실이란 말은 정성스럽고 진실되다는 말이니 신의 성실이란 말은 정성과 신의를 함께 갖춘 말이라고 할 수 있다.

삼요체의 성경신이 일치하듯이 신(信)의 신앙·신념·신의의 3형태도 결국 하나로 통한다. 삼요체로서의 성경신이 본래 하나이듯이 삼요체의 하나인 신의 형태인 신앙·신념·신의도 하나로 통한다.

## II. 유교에서의 신

유교에서는 3강5륜을 중요시하는데 5륜이란 군신유의(君臣有義) 부자유친(父子有親) 부부유별(夫婦有別) 장유유서(長幼有序) 붕우유신(朋友有信)인데 여기서 친구사이에 지켜야 할 윤리로서 신을 들고 있다. 증자(曾子)는 하루에 세 번 반성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친구와 더불어 사귀는데 불신(不信)스러운 일은 없었던가(與朋友交而不信乎 - 論語 學而篇)하였고 자하(子夏)는 「친구와 더불어 사귀는데 그 하는 말에 신이 있으면 비록 배우지 아니했다 하더라도 나는 반드시 배웠다고 하리라」(與朋友交 言而有信 雖曰末學 吾必謂之學矣 - 論語 學而篇)하였고 유자(有子)는 「신이 의에 가까우면 말은 실천할만한 것이다」(信近於義 言可復也 - 論語 學而篇)하였다. 이와 같이 공자의 제자들이 신을 중요시한 것은 공자가 신을 중요시하였기 때문이다. 공자는 말은 충신(忠信)하고 행동은 독경(言忠信 行篤敬)할 것을 강조하였다. 공자는 「사람이면서 신이 없으면 옳은 것을 알지 못할 것이니 큰차(車)에

끌채(輓)가 없고 작은 차에 끌채(軌)가 없다면 그 수레가 어떻게 굴러 갈 수가 있겠는가」(人而無信 不知其可也 大車無輓 小車無軌 其何以行之哉 - 論語 爲政篇)이라 하였고 또 「천승의 나라를 다스리는데 일을 공경하고 믿음이 있어야 한다」(道千乘之國 敬事而信 - 論語 學而篇)하였고 군자는 「신이 있는 연후에 그 백성을 부린다」(君子信而後 勞其民 - 論語 子張篇)고 하였다. 공자는 자공(子貢)과의 대화에서 차라리 죽을지언정 신임이 없으면 백성은 설 수가 없다.(自古 皆有死 民無信不立 - 論語 顏淵篇)고 할만치 신을 정치의 기본으로 생각했다. 공자의 사상을 이어받은 맹자(孟子)는 성선설(性善說)을 주장하여 「모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신이다」(有諸己之謂信)이라 하였고 주자(朱子)는 「신은 말의 씨」(信言之實)이라 하였다.

동방의 농경사회(農耕社會)의 농업협동체(農業協同體)에서 발달된 유교윤리는 무엇보다도 그 협동성을 강조하고 그 협동체를 이끌고 나갈 지도자의 덕성을 중요시하였다. 상업사회(商業社會)를 이루고 있는 서방에서는 개인이 활동단위로 되어 있어 사회생활을 하는데에는 개인의 자유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 유목사회(遊牧社會)를 이루고 있는 중동지방에서는 집단생활이 필요하고 그 집단을 통솔하기 위한 강력한 권력이 필요하였다. 이에 비해 동방의 농경사회에서는 농경의 계절적 한계(季節的 限界) 때문에 일정한 기간내에 농사일을 마쳐야 하는 관계상 강력한 협동정신이 필요하다. 농사는 일정한 지역에서 정착(定着)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주 오랜 세월을 내다 보면서 협동해야 한다. 그러므로 늘 유랑하는 유목민을 통제하는데 쓰이는 강력한 권력은 협동정신을 위축시키기 때문에 농경적 협동사회에 있어서는 강력한 외부적인 권력보다 덕을 갖추어서 백성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신망과 존경을 받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만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오랜기간의 자발적인 협력이 이루어 질 수가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농경사회의 윤리로 발전된 유교에서는 인간 개인의 덕목보다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인륜(人倫)의 도덕이 발달되었다. 농사는 인간의 노력보다도 자연의 조건이 좌우하고 그 자연의 조건에 맞게 얻어진 경험을 자기 자손에게 물려줌으로써 자연의 이치에 맞추어 가는 지혜를 얻었다. 유교의 최고 덕목인 효(孝)는 무엇보다도 부모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오랫동안

동안의 농경생활에서 얻는 조상들의 경험을 존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동방의 농경사회는 자연에 의지하고 자연에 순종하는 생활방식이므로 말하자면 천도문화(天道文化)다. 이에 대해서 중동의 유목사회는 자연보다도 집단의 단결을 중요시하는 말하자면 지도문화(地道文化)다. 또 서방의 상업사회는 자연이나 사회보다도 어디까지나 개인 위주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인도문화(人道文化)다. 지도문화인 유목사회는 일정한 정착지가 없고 늘 유랑하기 때문에 국경에 대한 관념도 희박하고 인류(人類)적 사고(思考)방식을 가진다. 이에 대해서 서방의 인도문화인 상업사회는 어디까지나 인간(人間) 개인의 활동이 중요시된다. 그런데 동방 농경사회에 있어서는 일정한 정착지가 있어 국경이 있고 그 정착지 안에서는 어떤 강제적 명령에 따라 농사 짓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웃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서로가 협동하여야만 농사를 지을 수가 있다. 그러므로 농경사회에서는 보편성을 띤 인류(人類)나 개별성이 강한 인간(人間)보다도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즉 인륜(人倫)이 중요시되어 그 인륜의 대표적인 것으로 오륜(五倫)이 있고 의(義) 친(親) 별(別) 서(序) 신(信)의 다섯 가지가 강조되었다. 의(옳은 것)는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인륜으로 군신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요 친(사랑하는 것)은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인륜으로 부자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요 별(하는 일이 다른 것)은 부부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요 서(차례가 있는 것)는 사회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나이든 사람과 젊은 사람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요 신(믿는 것)은 친구사이에 이루어지는 인륜이다. 즉 오륜 가운데 의는 국가생활에 필요한 인륜이요 친과 별은 가정생활에 필요한 인륜이요 서와 신은 사회생활에 필요한 인륜이다.

오륜의 의·친·별·서·신의 5덕은 유교가 도덕의 근본으로 알고 있는 인(仁)에서 나오고 인은 덮어놓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을 사랑해야 하고 사랑하는데에도 친함과 분별과 질서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예(禮)다. 의를 행하고 친을 행하고 별을 행하고 서를 행하는 것은 모두 인에서 우러나오는 것인데 인에서 우러나오는 이와 같은 덕목은 알아야만 사람 노릇을 할 수 있다.

이외에 우리가 살아나가는데는 오륜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지(知)가 필

요하다.

유교에서는 5륜사상과 더불어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을 5상(五常)이라고 하는데 5륜을 올바르게 지키면 자연 5상의 덕목을 행하는 것이다. 오륜과 오상에서 공통으로 들어 있는 덕목이 의(義)와 신(信)인데 그러므로 신의는 유교가 매우 중요시하는 덕목이라 할 수 있다

공자는 인(仁)을 강조하였지만 맹자는 의(義)를 강조하였다. 맹자는 인의예지(仁義禮智)의 4덕(德)을 말하면서 인의 실마리는 측은지심이요 의의 실마리는 수오지심이요 예의 실마리는 사양지심이요 지의 실마리는 시비지심(惻隱之心 仁之端也, 羞惡之心 義之端也, 辭讓之心 禮之端也, 是非之心 智之端也 - 孟子 公孫丑上)이라고 하였다 인(仁)에 근거하여 의(義)가 나오는데 인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가지는 보편적인 사랑이요 의는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지켜나가야 할 규범이다. 인간은 본래 선천적으로 선하여 인의 마음씨가 있지만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인에 어긋나는 일도 있을 수 있으므로 그것을 바로 잡는 것이 의다. 맹자가 양혜왕장(梁惠王章)에서 「인은 마음의 덕이요 사랑의 이치요 의는 마음의 제동이요 일의 옳음이다」(仁心之德 愛之理 義心之制 事之宜)라고 하였다. 인이 마음 속의 문제라면 의는 사회 속의 문제로 인간생활에는 인이 기초를 이루고 사회생활에는 의가 기초를 이룬다. 인에서 의가 나오고 의에서 예가 나오며 예에서 지가 나와 4단(端)을 이루는데 사단은 결국 신에 이르러 완결을 본다. 그러므로 사회생활의 기초인 의도 결국에 가서는 신과 결합된다. 신은 인의예지의 열매인데 특히 사회생활의 기초인 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신의라는 말도 생겼다. 인의예지신 5상(常)에 있어서는 인을 처음에 놓고 신을 나중에 놓은 것은 인에서 출발하여 신에 이르러 사회생활이 완성됨을 말하고 있다.

신의라고 하는 것은 본래 도덕적 규범인데 그 사회성이 강하여 성실이라는 유교적 도덕적 규범은 강제성이 없다. 이점에 있어서는 성실이라는 것도 같다. 신의나 성실은 도덕적 규범으로 그것을 법률로 강요하지 않고 그러한 강요가 없는 예의(禮儀)정도로 생각되어 왔다.

그런데 오늘날 사회생활이 발달됨에 따라 신의 성실이 더욱 절실하게 요청되어 그것을 강제화시키는 법률적인 규범이 되어가고 있다. 그만큼 신이

라는 것은 사회생활에 있어서 그 중요성이 강해졌다.

공자가 국가의 중요한 것을 경제·국방·신임의 세 가지를 들면서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신임이라고 하였는데 밥은 굶어도 며칠 살 수 있지만 사람사이에 신뢰나 신임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설 수가 없다고 하였다. 논어 안연(論語 顏淵)편에 「자공(子貢)이 정치에 관해서 묻자 공자는 식량을 족하게 하고 군사를 튼튼하게 하고 백성들이 나라를 의지하게 하는 것 즉 나라를 믿게 하는 것이다. 자공이 부득이하여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빼면 무엇을 먼저 빼오리까 하였더니 공자는 먼저 군사를 빼라 하였다. 또 자공이 묻기를 부득이하여 나머지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빼면 무엇을 빼리까 하였더니 공자는 식량을 빼라 예로부터 사람은 다 죽게 마련이다. 식량이 없으면 백성이 굶어죽은 일도 생기겠지만 만일 백성이 국가에 대한 신임이 없으면 그 국가는 잠시도 서지 못하고 망할 것이다」(子貢問政 子曰 足食足兵使民由之 子貢曰 必不得已而 去於斯三者 何先 曰去兵 子貢曰 必不得已而去 於斯二者 何先 曰去食 自古皆有死 民無信 不立)

공자의 민무신불립(民無信不立)은 주로 봉건적 관료사회에 있어서 피치자(被治者) 또는 피지배계급 통치자(統治者) 또는 지배계급에 대한 신임을 강조한 것이지만 이러한 신임문제는 하필 통치자와 피통치자나 혹은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사이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 상호간에도 필요하다. 봉건적 관료제 사회에서도 지배계급은 권력을 가지고 통치하는 것이 쉽기 때문에 그러한 권력위주의 지배상태가 만연되었으므로 공자가 권력보다는 도덕으로 백성을 감화시켜 그들의 신임을 얻어서 이들을 다스리는 것이 이상적이라는 덕치주의를 주장하였다.

공자의 민무신불립(民無信不立)이란 말은 정치에 대한 것을 물었기 때문에 서지 못한다(不立)란 말은 국가나 정부가 유지될 수 없다고 해석되지만 민무신불립이란 말에는 일반 민간인 사이에도 들어맞는다고 생각한다. 공자는 치자가 빠르면 정치가 잘되는 것으로 생각하여 주로 치자계급의 도덕을 강조하였지만 일반 민간인의 생활에 있어서 서로 믿지 못하면 단 하루도 살 수 없기 때문에 민무신불립은 정치관계를 떠나 일반사회의 윤리로 일반사회

의 기초가 신임에 있다는 것으로 확대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백성이 정부를 안 믿으면 정부는 잠시도 서지 못하는 것처럼 일반인의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서로 믿지 못하면 하루도 살수 없는 것은 사실이다.

또 공자가 신임을 강조하면서 왜 신임이 필요한가를 말하는데 백성을 의지시키면 되지 백성에게 알릴 필요는 없다.(子曰 民可使由之 不可使知之 - 論語 泰伯篇)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정부가 하는 일을 일일이 백성에게 알릴 필요는 없고 정부는 백성들이 정부를 믿고 덮어놓고 따르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석하여 왔는데 이것은 공자의 뜻을 오해하는 것이다. 공자가 백성으로 하여금 정부를 믿고 정부에 의지하게 하는 것을(民可使由之) 강조하였는데 그 이유로 백성에게는 일일이 알릴 필요가 없다(不可使知之)고 한 것은 불가(不可)의 가(可)자의 뜻을 곡해한 것이다. 가(可)자에는 옳고 그르다의 가(可)자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가(可)의 두 가지 뜻이 있어 공자의 불가사지지(不可使知之)는 백성에게 알리는 것이 옳지 못하다는 당위(當爲) 뜻이 아니고 일일이 알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事實)을 말한 것으로 해석된다. 공자는 정치가 신임을 얻어야 하는 이유가 백성들에게 알리지 말고 덮어놓고 믿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될 수 있으면 백성들에게 알릴 수 있으면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것이 틀림없다. 공자는 유교무류(有教無類 - 論語 衛靈公篇)라는 말을 했는데 이는 공자가 교육을 중시하여 될 수 있으면 인민들 교육시켜 정부시책을 알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

유교무류는 「가르침이 있고 종류는 없다」는 뜻인데 인간은 그 종류에 따라 선인·악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본래 평등하여 그 능력과 자질이 차별이 없는 것인데 교육에 따라서 착하게도 되고 악하게도 된다는 뜻이다.

공자의 인간에는 종류가 없다(無類)는 사상은 맹자의 성선설(性善說)로 발전하여 교육지상주의를 낳는다. 인간은 될 수 있으면 교육을 시켜서 사물을 알게 하여야 하는데 그러므로 공자는 아는 것·어진 것·용기 있는 것(智仁勇)을 군자의 필수 덕목으로 생각하는 만큼 아는 것을 중요시하였다. 알기 위해서는 아는 사람에게서 배워야 하는데 어느 정도 지도를 받으면 스스로 배울 수도 있게 된다. 공자의 언행록을 기록한 논어(論語) 제일 첫머리에 공



자님 말씀이 배우고 때로 익히면 기쁘지 아니한가(子曰學而時習之 不亦說乎 - 論語 學而篇)를 넣은 것을 보아도 공자의 지식 존중 교육 중시사상을 엿볼수 있다.

그러한 공자가 정치가로 하여금 백성에게 정치에 관한 것을 알려서는 아니 된다고 말할 까닭이 없다. 공자는 신임을 얻는 도리는 먼저 백성에게 알리는데 있지만 백성 전부에게 다 알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평소부터 덕을 닦아 백성의 신임을 얻어두면 백성들에게 다 알리지 못해도 백성들의 평소의 신임으로 정치를 해 나갈 수 있다는 말이라고 해석된다.

### Ⅲ. 基督教에서의 信

유교에서 의친별서신(義親別序信)의 5륵을 강조하는데 대해 불교에서는 불법승(佛法僧)의 3보(寶)를 내세우고 기독교에서는 신망애(信望愛)의 3훈(訓)을 내세운다. 유교는 종교보다도 윤리적 색채가 강하고 불교는 종교인 동시에 철학적 사유가 깊다. 이에 비해 기독교는 종교적 색채가 강하고 종교적 색채는 무엇보다도 신앙을 토대로 한다. 그런 의미에서 종교에서 신을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기독교라 할 수 있다.

유교에서는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신을 강조하지만 종교생활에 있어서의 신은 그렇게 강조하지 않는다. 공자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이성적이어서 상식에 어긋나고 이성애 맞지 아니하는 것을 잘 말하지 않았다. 공자는 지극히 세속적인 인륜 도덕을 강조하였으나 괴상스러운 일이나 폭력적인 사건이나 어지러운 일이나 귀신에 관한 일은 별로 말하지 않았다.(子不語 怪力亂神 - 論語) 공자는 내심으로 하느님(上帝)를 믿고 때때로 기도를 한 듯 하나 제자들 앞에서 드러내놓고 종교적 행위는 하지 않은 것 같다. 제자가 공자에게 사람이 죽은 뒤에 어찌되느냐고 물었더니 살아 생전 일도 잘 모르는데 죽은 뒤의 일을 어찌 알겠느냐고 하였다. 이로 보면 공자는 인간에 대한 믿음 사회나 국가에 대한 세속적 믿음은 강조하였으나 하느님이나 상제나 절대자에 대한 종교적 신앙은 역설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 석가는 종교적 사색을 통하여 인격의 궁극적 완성을 시도하

여 드디어 대각(大覺)하여 부처가 되었다. 그러나 공자는 15세부터 학문에 뜻을 두기 시작하여(志于學) 30세에 이르러 자립하게 되었고(而立) 40세에 이르러 별로 흔들리는 일이 없어졌으며(不惑) 50세에 가서는 천명을 알게 되고(知天命) 60세에 가서는 무슨 말을 들어도 귀에 거슬리는 일이 없으며(耳順) 70세에 가서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도덕과 법에 어긋나지 않게 되었다(從心所欲 不踰矩)고 한 것 같이 늘 부단히 수양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인격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70세에 가서 자기의 행동이 윤리규범에 합치되게 된 것을 알게 되었다. 석가는 산중에 가서 깊은 사색을 통해서 종교적 체험을 겪고 지금까지의 석가와는 전혀 다른 부처가 되었다. 그는 우주의 진리인 법(法)을 믿고 수도를 하면 그 우주진리의 화신인 불(佛)이 될 것을 믿고 또 자기는 불이 되었다고 확신했다. 그러므로 석가는 무엇보다도 우주의 진리를 믿었고 인간은 본래 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도를 하면 부처가 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므로 불교는 진리에 대한 믿음·인간에 대한 믿음에 그 기초를 두고 있으므로 신(信)을 중요시하는 종교라고 생각되지만 그 믿음은 무조건적인 믿음이 아니라 지혜(智慧)에 뒷받침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불교는 믿음과 더불어 지혜를 중요시한다. 불법승 3보에서 법은 우주의 진리요 불은 그 우주의 진리의 체현자(體現者)요 승은 불이 되기 위하여 지혜를 닦는 사람이므로 불교는 유교에 비해서 믿음을 역설하지만 그 믿음은 지혜에 뒷받침되어야 하는 일종의 조건부 신앙이다.

이에 대해서 예수는 하느님의 존재를 믿고 자기가 그 아들임을 계시(啓示)로 믿게 된다. 예수의 탄생에 관한 일이나 또 예수가 행한 여러 가지 기적이거나 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 부활된 일은 보통 이성으로는 믿기 어렵고 이성을 초월해서 종교적 차원에서만 믿음이 가능하다. 말하자면 기독교의 신앙은 무조건적이다. 그런 의미에서 종교 중에서 가장 믿음을 강조한 것으로 생각된다.

기독교 신앙의 3훈은 신망애(신앙·소망·사랑)는 신앙을 맨 첫 번에 말하지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하였다. 그렇다고 하면 기독교의 제1윤리규범은 사랑일 것이다. 그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토록 사랑하사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서 구원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본성에 사랑이라는 것도 결국은 신앙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기독교의 본체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다.

서양 문명의 2대 조류인 그리스 문명과 기독교문명은 전자가 합리적(合理的)인데 대해 후자는 비합리적(非合理的)이다. 합리적 사고는 과학의 근거가 되어 서양의 과학을 발달시켰지만 비합리적 신앙은 너무 합리적으로만 떨어져 여러 가지 이해타산 등 세속적 타락으로 흐르기 쉬웠던 그리스 문명을 합리성을 넘어서 인간심리의 근원의 순수성을 찾아서 정신문화를 발달시키는데 공헌하였다.

인간은 고등동물로 합리성이 강하지마는 때로는 지나친 합리성 때문에 공리주의에 떨어져 인간정신의 순수성과 신성성을 무시하기 쉽다. 인간은 종교적 신앙으로 다른 동물들이 맛볼 수 없는 정신적 환희를 느끼게 되는데 그러므로 문명도 이성(理性)이나 초이성(超理性)이나의 양자택일이 되어서는 아니되고 이성적이면서 또 초이성적인 영혼의 세계도 체험하여야만 참 인간이 될 수 있다. 서양의 역사가 그리스문명과 기독교문명이 교차되어 가면서 발전된 것도 이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모든 종교는 대개 신앙에 기초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신앙을 존중하는 것은 기독교라고 할 수 있다.

#### IV. 수운과 신

동학을 창건한 수운 최제우는 동경대전(東經大全)과 용담유사(龍潭遺詞)에서 많은 가르침을 베풀었는데 동경대전 가운데 논학문(論學文)편에서 지기금지원위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至氣今至願爲大降 侍天主造化定 永世不忘萬事知)의 주문을 풀이하였고 좌잠(座箴)편에서 「우리 도는 넓고도 간략하니 많은 말을 할 것이 아니라 별로 다른 도리가 없고 성경신 석자이니라」(吾道博而約 不用多言義 別無他道理 誠敬信三字)고 하였다. 수운의 하늘에서 받은 주문과 성경신 사상은 그대로 증산에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수운이 자기가 창도한 동학의 취지를 성경신 석자로 요약한 것은 공자가

지인용(智仁勇)을 삼달덕(三達德)이라 하여 군자의 기본적 도덕으로 삼고 불교에서 불법승(佛法僧)을 삼보(三寶)라고 하고 기독교에서 신앙애(信望愛) 삼훈(三訓)을 강조하는데 대해 동학의 요점을 성경신의 세자로 압축하였다. 공자는 지인용의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것보다는 지인용이 조화를 이룬 중용(中庸)을 높이 평가하였다. 불교의 삼보 중 불 즉 부처는 우주의 대도를 깨달은 사람이요 법은 우주의 대도 그것 자체이요 승은 부처가 되고자 수행하는 사람이다. 불교에서는 누구나 다 불성을 가지고 있어 깨닫기만 하면 부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부처는 우주의 대도를 깨달아서 그 우주의 대도와 합일된 사람이요 승은 깨닫기만 하면 부처가 되고 부처가 되면 우주의 대도와 합일되므로 불법승은 결국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기독교에서 신앙애를 강조하지만 그 중에서 사랑이 으뜸이라고 하여 사랑을 가장 높이 쳤지만 그 사랑은 본래 하느님의 속성이요 그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려면 먼저 하느님을 믿어야 하고 하느님을 믿으면 소망이 생기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결국은 일치된다고 할 수 있다.

수운은 유교나 도교나 불교와 같은 동양종교의 전통을 중요시하면서 서양에서 들어온 기독교에 관심을 가졌다. 언뜻 보기에는 수운의 동학사상이 서학으로 일컬어지는 기독교를 배격한 것 같으나 하느님 즉 천주를 믿는 점에서는 다 천도(天道)가 되어 동서가 다를 바가 없으나 단지 내가 동방에서 났기 때문에 천도를 인식하는 학문인 동학(東學)은 서학(西學)과 다를 뿐이라고 했다. 논학문(論學文)에 내가 동에서 나서 동에서 받았으니 도는 비록 천도라고 하지만 학인즉 동학이라(吾我生於東 受於東 道雖天道 學則東學)라고 한 것을 보면 수운이 믿는 천주와 서학이 믿는 천주가 다를 바 없지만 생활환경의 차이로 그 이해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생각하였다. 서학이 하느님을 창조주로서 밖에서 초월적으로 찾는데 대해 수운은 우주는 창조(創造)된 것이 아니라 그 자체의 힘으로 자연발생된 무위이화(無爲而化)의 조화(造化)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조화의 원동력은 조화물에 내재하여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기독교가 하느님을 밖에서 찾았다하여 인간 내부의 하느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아니요 수운이 하느님을 안에서 찾았다고 하여 인간 밖에 있는 하느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요한복음 14

장 8절에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였는데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 라는 예수의 말은 하느님이 분명히 예수에 내재해 있다는 것을 말한다. 또 동경대전 포덕문(布德文)에 보면 수운이 자기 안에서가 아니라 자기 밖에서 분명히 하느님의 소리를 들었다고 하였다. 즉 「뜻밖에도 사월에 마음이 섬뜩해지고 몸이 떨려서 무슨 병인지 집중할 수도 없고 말로 형성하기도 어려울 즈음에 어떤 신선의 말씀이 있어 문득 귀에 들리므로 놀라 캐어물은 즉 대답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사람이 나를 하느님(상제)라 이르거늘 너는 하느님을 알지 못하느냐.(不意四月 心寒身戰 疾不得執症 言不得難狀之際 有何仙語 忽入耳中 驚起探問則 曰勿懼勿恐 世人謂我上帝 汝不知上帝耶)」 고 한 것은 분명히 하느님을 내재적이 아니라 초월적으로 본 것이다. 이와 같이 하느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하느님은 초월적인 동시에 내재적인 것으로 본 것은 예수와 수운이 같다. 다만 그 생활환경의 차이로 기독교는 하느님의 초월성을 더 강조하고 동학은 하느님의 내재성을 더 강조한 것뿐이다.

믿는다는 것도 내재적인 하느님과 초월적인 하느님에 대해서 그 형태가 같지 않다. 초월성을 강조하는 기독교에서는 하느님의 존재를 신앙하는 것이 첫째이지만 내재성을 강조하는 수운은 정성을 첫째로 쳤다. 그러나 정성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 성경신을 같이 강조하였는데 공경한다는 것도 믿는다는 것도 결국은 정성으로 귀일된다.

수운은 하느님을 모신다고 하였다.(侍天主) 하느님은 인간에 내재해 있기 때문에 인간이 하느님을 모시고 있는 것이다. 하느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의암 손병희(義庵 孫秉熙)는 「사람이 곧 하느님(人乃天)」 이라고 하였다. 하느님을 모시고 있거나 사람이 곧 하느님이라는 것은 인간 본성의 선량함을 믿고 있는 것이 그 토대이다.

## V. 증산과 신

### 1. 대순진리회 요람에서의 신

대순진리회의 요람에서는 신을 이렇게 풀이하고 있다. (1) 한마음을 정한 바엔 이익과 손해와 사(邪)와 정(正)과 편벽(偏僻)과 의지(依支)로서 바꾸어 고치고 변하여 옳기며 차이(差異)가 생기는 일이 없어야 하며 (2) 하나를 둘이라 앓고 둘을 셋이라 앓고 저것을 이것이라 앓고 앞을 뒤라 안하며 만고를 통하되 사시와 주야의 어김이 없는 것과 같이하고 (3) 만겁(萬劫)을 경과 하되 강하(江河)와 산악(山岳)이 움직이지 않는 것과 같이하고 (4) 기약이 있어 이르는 것과 같이 하고 한도가 있어 정(定)한 것과 같이하여 나아가고 또 나아가며 (5) 정성하고 또 정성하여 기대한 바 목적이 도달케 하는 것이 신(信)이라 한다고 하였다.

이를 풀이하여 보면 신이란

첫째로 불변(不變)의 원칙이다.

신이란 한번 정하면 변하거나 차이가 없이 항상 첫 번과 같아야 한다. 이 불변의 원칙이 신의 핵심이다. 믿는다는 것은 시종일관하여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인데 일단 믿는 이상 이해관계에 따라서 바뀔 수가 없는 것이 신이다. 한번 정한 다음에 이익과 손해와 사(邪)와 편벽과 의지로 바꾸는 것은 신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이지만 대순진리회의 요람에서는 비록 정(正)이라 하더라도 바꾸고 고치고 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였다. 언뜻 생각하면 아무리 믿더라도 그것이 사(邪)되어서 바르지 않은 것 같이 생각되어도 그 바른 것을 위하여서 마음을 바꾸어서는 아니된다고 하였다.

바른 것(正)과 사된 것(邪)은 상대적이지만 믿음은 절대적이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변하지 말고 일관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둘째로 진실(眞實)의 원칙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의 양심에 비추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고집하는 것이다. 일단 옳다고 스스로 믿는 이상 그 소신을 끝까지 밀고 나가야지 경우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해서는 아니된다. 하나면 최후까지 하나라고 하여야 하며 압력을 받아서 하나를 둘이라고 해서는 아니된다. 즉 죽음을 각오

하면서 까지 그 진리를 지키는 것이 믿음이다. 그 진리는 만고에 사시와 주야가 어김이 없는 것같이 불변하는 것이다.

셋째는 부동(不動)의 원칙이다.

믿음은 어떠한 경우에도 가볍게 움직여서는 아니 된다. 산악과 강하는 만겁을 경과해도 움직이지 않고 그 본래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산과 강은 믿음직스럽다. 일단 믿는다고 하면 이것을 흔들어도 움직이지 않는 요지부동(搖之不動)의 굳은 자세를 가져야한다.

넷째는 기한(期限)의 원칙이다.

믿음은 그냥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기약(期約)에 이르고 어떠한 한도(限度)를 정한 것같이 하나의 매듭을 지어야 한다. 망망대해를 무작정 가기보다도 어느 정도의 중간 목표가 있어 그 곳을 향해 가는 것이 순리적이다. 믿음도 목표를 너무 멀고 높게만 잡을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우선 가까운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하여 정진하면 그 목표를 달성한 뒤에 다시 좀더 멀고 높은 목표를 향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마치 어떠한 기약이 있어서 그 기약에 이르도록 힘쓰고 어떠한 한도가 있어서 그 정한 한도를 지키는 것과 같다.

다섯째는 목적달성(目的達成)의 원칙이다.

믿음은 상제에 대해서나 사회에 대해서나 자기에 대해서나 불변의 원칙과 진실의 원칙과 부동의 원칙과 기한의 원칙으로 이어 나가야만 되는데 그 중국의 목적은 도통하는데 있다. 믿음은 계속하면 기대한 바의 목적에 틀림없이 도달한다는 굳은 믿음이 있어야만 그 믿음이 굳어진다.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정성하고 또 정성하는 것이 믿음의 실체이다.

## 2. 대순지침에서의 신

박한경 도전이 도인에게 내린 훈시인 대순지침에 신조에 의한 수도생활에 관하여 사강령과 삼요체에 관하여 말씀이 있다. 먼저 사강령의 안심에서는 (가) 대병지약은 안심안신이라 하셨으니 깊이 명심하여야 한다. (나) 마음은 일신을 주관하여 만기(萬機)를 통솔이용한다. (다) 마음이 몸의 주로서 제병제약(諸病諸惡)을 낚아들이는 것이다. (라) 전경에 사람의 마음은 신의 중요

한 용사기관이요 신이 출입하고 왕래하는 길이다.(心也者 鬼神之樞機也 門戶也 道路也)하셨으니 마음의 발로(發露)에 사심(邪心)을 버리고 예법에 합당케 하는 것이 안심이다 하였다. 또 안신에 관해서는 (가) 심안신태(心安身泰)란 마음이 안정되어야 몸이 태평하다는 뜻이다. (나)죄는 마음이 짓고 벌은 몸이 받는 것을 생각하여 자기가 자기를 욱되게 하지 않아야 한다. (다) 전경에 병은 걸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서 일어난다(病自己而發)고 하셨으니 잘 새겨두라. (라) 여동빈도 몸의 병에는 약이 있으나 마음의 병은 고치기 어렵다(身病可藥 心病難醫)라 하였고 옛사람들도 모든 병이 마음에 따라 생긴다(諸病 從心起)라 하였으니 마음이 내몸을 좌우한다는 것을 깨달아라. (마) 상제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친은(親恩)에 보답하는 심신일여(心身一如)의 수신이 되어야한다고 하였다. 경천에 관하여서는 (가) 구천대원조화주신이신 구천상제님의 주제하의 인간임을 알아야 한다. (나) 도인들이 구천상제님의 대순진리의 봉교신앙(奉敎信仰)에 사려(邪慮)없는 경건일념(敬虔一念)을 다하는 마음이 경천이라고 하였다. 수도에 관하여서는 (가) 대순진리를 창도하신 유법(遺法)의 훈전(訓典)과 요체(要諦)를 봉행하여야 한다. (나) 일체의 자부자찬(自負自讚)의 마음을 버리고 수도의 완성을 기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삼요체의 성에 관하여서는 (가) 성은 사람의 정기신(精氣神)의 합일의 진성(眞誠)이다. (나) 천도의 운행이 차착(差錯)이 없으므로 남이 모름에 패의치 말아야 한다. (다) 불일이이(不一以二)의 본심인 인선(仁善)의 자성(自誠)이 도성(道成)의 정석(定石)이 되므로 성이 아니면 만물도 존재하지 못한다. (라) 전경에 성을 지극히 하라 하셨으니 성의 소귀(所貴)함을 깨달아 봉행하여야 한다. (마) 성은 거짓이 없고 꾸밈이 없이 한결같이 상제님을 받드는 일이다 하였다. 경에 관해서는 (가) 모든 일이 내심의 소정(所定)에 따라 몸으로 표현하는 법이다. (나) 사람은 누구나 마음을 먹는대로 행동하게 되는데 옳은 일도 마음에 두지 않으면 바로 행하지 못한다.(有其心則有之 無其心則無之)하였으니 도인들은 대월상제(對越上帝)의 영시(永侍)의정신을 권권복응(拳拳服膺)하여야 한다. (다) 지성봉축(至誠奉祝)에 변함이 없고 양면이 없어야 경이라 하는 것이다. (라) 경은 예의 범절을 갖추어 처신처세 하는 것이다 하였다. 신에 관해서는 (가) 자각이 없으면 확신이 서지 않는다 (나) 전



경에 농부가 곡식 종자를 갈무리하여 두는 것은 토지를 믿는 까닭이라 하셨으니 가식(假飾)이 없는 신앙의 본의(本意)에 위배됨이 없어야 한다는 뜻이다. (다) 백성이 국가를 믿지 않고 자식이 부모를 믿지 않는다면 난신적자(亂臣賊子)가 될 것이다. (라) 수도자가 믿음이 부실하면 결과적으로 난법난도자가 된다. (마) 일관성의 믿음을 사실화하여 삼계삼법(三界三法)의 성경신으로 자아대성(自我大成)을 위한 작업이 신인 것이다. (바) 믿음은 의심없는 굳은 신념인 것이다. (사) 성은 기심(欺心)이 없어야하며 경은 예절을 바르게 행하는 것이며 믿음은 의심을 품지 안아야 하는 것이다. (아) 포덕 교화 수도 및 모든 일이 성경신을 떠나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자) 성경신으로 해원상생을 이루며 생사판단도 결정되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대순지침에서 신에 관한 것을 요약하면 믿음은 자각(自覺)이 토대가 되며 성경신으로 자아대성(自我大成)을 위한 작업이 믿음이며 믿음은 의심이 없는 것인데 백성이 국가를 믿지 않고 자식이 부모를 믿지 않고 수도자가 믿음이 부실하면 난신적자·난법난도자가 된다는 것이다.

### 3. 전경에서의 信

수운은 하느님을 모시고 있다고 믿었는데 증산은 자기가 곧 하느님이라는 것을 믿었다. 인내천(人乃天)이란 말은 사람은 다 하느님이라는 뜻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람은 추상적 보편적 개념이다. 그러한 추상적 보편적 개념을 증산은 구체적 특수적 개념화시켜 그것을 바로 자기자신에게 적용시켜 자기가 곧 하느님이란 것을 자각(自覺)하게 되었다.

신인격리(神人隔離)사상에 젖은 서방에서는 하느님은 어디까지나 하느님이요 사람은 어디까지나 사람으로 하느님이 사람이 될 수도 없고 사람이 하느님이 될 수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천인합일(天人合一)사상에 젖은 동방에서는 하느님과 사람은 동일한 존재로서 하느님이 사람이 되고 사람이 하느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구약(舊約) 창세기(創世記)는 태초에 하느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여 이 우주에는 창조자와 피창조자가 따로 있고 창조자는 하느님이요 인간은 피창조자의 하나로 되어있

다. 그런데 중용(中庸)에는 하늘의 명령을 성품이라 한다(天命之謂性)고 되어 있는데 성품이라는 것은 인간의 심성을 말하는 것으로 하늘의 명령과 인간의 심성은 같다는 것이다. 동서양이 이와 같이 하느님과 사람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인간의 성품에 대한 견해의 차이에서 온 것 같다. 동방사람은 사람의 성품은 본래 하느님과 같이 착하며 그것이 곧 양심(良心)이라고 생각한다. 서방에서도 인간은 본래 하느님을 닮아서 착하게 태어났지만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이브가 악마(사탄)의 유혹에 빠져 타락한 후에 인간은 죄인이 되어 그 성품이 악해졌다고 생각한다. 그런 까닭에 동방사람은 스스로 자기 마음을 가라앉히고 마음의 깊은 곳에 자리잡고 있는 마음의 근본인 양심을 찾게 되면 그것이 바로 대도(大道)를 깨닫는 일 이요 도통(道通)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이에 비해 서방에서는 사람은 이미 하느님을 배반한 죄인이 되었으니 자기 힘으로는 그 죄를 씻을 수 없고 오직 하느님의 용서와 구원을 바랄 뿐인데 그러므로 늘 하느님을 찾고 그에게 기도를 올린다.

자연의 혜택(惠澤)속에 살고 자연의 힘에 의지하고 사는 농경(農耕)생활을 하는 동방사람에게 자연은 곧 하느님이요 사람도 그 자연의 일부임으로 자연과 인간의 일체성(一體性)을 믿었다. 그러나 자연의 혜택보다 자연의 시련(試鍊)속에서 자연과 투쟁하여가며 사는 유목(遊牧)생활을 하는 중동사람의 사상을 받아들인 서방사람은 자연과 인간의 대립관계가 강조되었다.

동방의 천인합일사상은 관념적으로 이어 내려왔는데 수운에 이르러 그것을 명확하게 재인식하게 되어 인간이 하느님을 모시고 있다고 믿었고 증산에 이르러 그것을 직접 자기와 결부시켜 인간이 곧 하느님이요 내가 곧 하느님이라는 확신에 도달하게 되었다.

증산은 자기자신을 최고의 신으로 확신하고 이미 조화로서 이루어진 우주를 뜯어고치고 재창조할수 있는 권능을 가진 신으로 생각했다. 전경 공사1-2에는 「...나는 삼계의 대권(大權)을 주재(主宰)하여 선천의 도수(度數)를 뜯어고치고...」라 하였고 전경 교운1-9에는 「...신도(神道)의 권위가 떨어지고 삼계가 혼란하여 천도나 인사가 도수를 어김으로 원시(元始)의 모든 신성·불·보살(神聖·佛·菩薩)이 회집하여 인류와 신명계의 겁액(劫厄)을 구천에

하소연하므로 내가 서양 대법국(大法國) 천계탑(天啓塔)에 내려 삼계를 둘러 보고 천하를 대순하다가 이 동토(東土)에 그쳐 모악산 금산사 미륵금불(母岳山 金山寺 彌勒金佛)에 이르러 삼십년을 지내다가 최제우에게 제세대도(濟世大道)를 계시하였으나 제우가 능히 유교의 전현을 넘어 대도의 참뜻을 밝히지 못하므로 갑자(甲子)년에 드디어 천명과 신교(神敎)를 거두고 신미(辛未)년에 세상에 내려 왔노라」고 하여 자기가 후천개벽(後天開闢)의 구세주(救世主)임을 명백히 하였다. 증산이 이와 같이 자기가 하느님이라는 확신을 갖게 된 것은 그가 도통함으로써 자기의 본래 성품속에 깃들여 있는 신성(神聖) 또는 양심의 존재를 자각하고 굳게 믿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자기 확신 즉 자신(自信)은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도 자기의 신성함을 믿게 만들었다. 전경 행록5-19에 「...김자현은 유월 어느날 상제께서 내가 나를 믿느냐고 다짐하시기에 지성으로 믿사오며 고부화액때에도 상제를 따랐나이라고 믿음을 표명하였도다」고 되어있다. 그리고 전경 교법1-5에는 「너희들이 믿음을 나에게 주어야 나의 믿음을 받으리라」고 하였는데 증산이 자기자신이 하느님이라는 믿음은 다른 사람이 그렇게 믿어줌으로써 더욱 확실해진다고 생각했다.

증산은 동방적 풍토에서 자라서 천일합일사상으로 사람이 곧 하느님이라는 기초관념이 잠재해 있었는데 동학의 시천주(侍天主) 또는 인내천(人乃天) 사상으로 그 잠재의식이 현실화되고 다시 증산 자신의 깊은 수도와 대각(大覺)으로 내가 곧 하느님(吾乃天)이라는 자신을 굳게 갖게 되었고 그 자신은 그의 제자가 자기를 믿는 것을 계기로 더욱 확고해진 것으로 여겨진다.

증산은 그의 자각과 도통으로 우주 최고신임을 확신하였지만 전경 교법 2-56에 「천존(天尊)과 지존(地尊)보다 인존(人尊)이 더 크니 이제는 인존시대이니라」고 하여 지금까지 최고의 존재라고 생각되던 하느님보다 사람을 더 귀하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인존선언(人尊宣言)은 인류의 누구도 감히 발설치 못했던 폭탄선언이요 천지개벽이래 처음 있는 후천개벽의 구체적 모습을 들어낸 것이다. 즉 지금까지는 사람이 신의 밑에서 신을 추종하고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사람이 신을 부리고 살게 되는데 이와 같은 확신은 사람가운데 최고신이 잠재하고 있다는 믿음에서 온 것이다. 천명을 성품이라 하고

사람의 성품은 본래 착하다는 동방의 전통사상이 증산에 이르러 움직일 수 없는 믿음으로 굳어진 것이다.

증산은 먼저 하느님을 믿었다. 증산이 하느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느님도 증산을 믿었다. 증산은 그 하느님이 인간의 마음속에도 깃들이고 있고 그러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속에도 깃들이고 있다고 믿었다. 증산이 마음의 하느님을 믿었기 때문에 마음의 하느님도 증산을 믿었다. 증산은 자기가 곧 하느님이라고 믿었고 하느님도 증산을 하느님이라고 믿었다. 여기에서의 하느님은 하늘에 계신 하느님과 땅에 계신 하느님과 인간의 마음속에 계신 하느님이 일체가 되어 서로 믿는데서 그 존재를 확인했다. 증산이 김자현을 보고 네가 나를 믿느냐고 한 것은(전경 행록5-19) 단순히 인간 강증산을 믿느냐는 뜻이 아니라 하느님과 일체가 된 강증산을 믿느냐의 뜻이요 「너희들이 믿음을 나에게 주어야 나의 믿음을 받으리라」(전경 교법1-5)는 것은 하느님에 대한 믿음, 자기자신에 대한 믿음, 다른 사람에 대한 믿음이 합쳐져야만 완전한 믿음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부 : 정대진 전 이사장의 신관)

정대진 대전대학교 전이사장은 대순사상논총 제1집(1996)에서 대순진리회의 신관에 대하여 첫째 믿음에 정한 바를 어떠한 사사로운 욕심에 의해 변화시키지 않는 것이며 둘째는 이러한 마음을 지속시켜 기대한 바 목적을 꼭 달성케 하는 것이라고 요약하였다. 그리고 다시 그것을 대순사상에 입각하여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풀이하였다. 첫째 마음의 정한바란 다름아닌 구천상제에 대한 영시(永侍)의 정신을 확립하여 나와 구천상제 사이에 불변하는 믿음의 관계를 정하는 것이다. 구천상제의 대순하신 진리를 자각하고 강세하신 강증산이 구천상제임을 믿는 것은 곧 대순사상의 핵심이라 하고 전경 교법1-5에 「너희들이 믿음을 나에게 주어야 나의 믿음을 받으리라」는 것을 인용하여 대순진리회는 구천상제에 관한 믿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 다음으로 기대한 바 목적을 꼭 달성케한다는 것은 구천상제의 대순하신 뜻을 이어받아 실천수도하여 “영통” 또는 “도통”이라고 하는 수도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한 과정에는 의례이

환경의 변화나 사사로운 욕심따위로 인해 마음의 정한 것이 흔들리는 어려움 따위를 예측할 수 있지만 그 정한 것을 확고히 하여 결과적으로 목적을 달성했다면 이때 비로소 그 믿음이 확인된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신의 요체란 내면의 일정함이 행동에서 나타나 결과적으로 목적을 달성케하는 수행자의 자세라고 하겠다고 하였다.

## VI. 법률과 신

신이라는 것은 종교상의 수도요체일뿐 아니라 도덕적 수양요체요 나아가서는 일반인의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불교나 기독교나 증산사상에서는 종교적인 덕목이지만 유교에서는 종교적이기보다는 오히려 윤리적 덕목이다.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국민들이 지켜야할 규범은 종교와 도덕 외에 법률이 있다. 신은 종교적 덕목이요 윤리적 덕목인 동시에 법률적 규범으로도 존재하게 된다. 그러므로 신은 가장 보편적인 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헌법에서 양심의 자유를 선언하여 신념을 보장하고 또 종교의 자유를 선언하여 신앙을 보장하고 또 공공복리의 원칙을 선언하여 신의를 보장한 것은 이 신념·신앙·신의는 종교생활 또는 도덕생활 뿐 아니라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서 중요한 행동규범이라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 1. 헌법상의 신

우리 나라 헌법 제19조에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되어 있고 또 20조에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되어 있는데 양심의 자유는 신념(信念)의 자유요 종교의 자유는 신앙(信仰)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다. 신념의 자유는 헌법 제10조의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보장이다. 기본적 인권으로는 자유권 평등권이 있고 그 자유권에는 정신적인 자유인 신념과 신앙의 자유가 보장된다. 또 기본적 인권으로 재산권도 보장되는데 헌법 제23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하고 이어 제2항에서 「재산권의 행사는 공

공복리(公共福利)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재산권의 행사를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라는 것은 재산권을 자기 개인의 이익만을 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재산권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본래 천지우주의 만물은 다같이 살도록 되어 있고 지구상의 물자는 하필 사람뿐이 아니요 모든 생물이 다같이 사용하도록 마련된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가 법으로 개인 재산권을 인정하는 것은 그 재산을 가진 개인이 개인 목적만을 위하여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공공복리에 적합되도록 사용하라는 것이다. 말하자면 국가가 어느 개인에게 재산권을 인정하는 것은 그 개인이 공공복리를 위하여 그 재산을 쓰도록 신탁(信託)한 셈이다. 공공복리라는 것은 사회적 공동이익인데 사회적 공동이익이 되려면 그것이 사회적 공동이익이라는 신념을 사회 전체 사람들이 가져야 한다. 한 사람이 아무리 사회적 공동이익이 된다고 주장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믿지 않으면 그것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공공복리라는 말 가운데에는 사회적 신뢰가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 헌법에서 재산권을 공공복리에 맞도록 행사하라고 하였는데 그 재산권의 행사에 관한 규정을 정한 민법에서는 제2조에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른바 신의 성실의 원칙(信義誠實原則)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헌법이 공공복리의 원칙(公共福利原則)을 좀 더 구체화시킨 것이다.

## 2. 민법상의 신

민법 제2조의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는 신의성실의 원칙은 우리나라 법률제도에 있어 신념의 자유와 신앙이 자유와 더불어 신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믿음은 세 단계로 발전했다. 첫째는 자기자신을 믿는 자신(自信) 또는 신념(信念)이다. 자신이나 신념은 자기자신의 인간성에 대한 선량함을 전제로 하고 자기의 신념이 결코 자기자신만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이롭게 한다는 믿음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양심(良心)에 관련되어 있다. 그러므로 양심으로부터 우러나지 않는 신념은 하늘의 명령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욕심 즉 이기심(利己心)에서 우러난 것이기 때문에 옳은 신념이

라 할 수 없고 그릇된 신념이 되어 사회에 화를 끼친다.

믿음의 둘째 단계는 사회생활을 하는데서 요구되는 타인에 대한 신의(信義)다. 사람과 사람사이에 신의가 없으면 사회는 성립하지 못한다. 사회 중에서 가장 조직적인 사회는 국가인데 국가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서로 믿고 신의를 지키고 또 정부를 신임하는 일이다. 타인에 대한 믿음인 신뢰(信賴)나 신용(信用)이나 신의(信義)가 없는 사람들과는 같이 살 수 없고 신임(信任)이 없는 정부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민법 제2조는 제1항의 신의성실의 원칙 다음에 제2항으로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권리남용금지의 원칙(權利濫用禁止原則)을 내세웠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권리를 정당하게 즉 공공복리에 맞게 행사하는데서 이루어지는 것이요 만약에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지 않고 부당하게 행사하는 것, 즉 남용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이다.

민법은 개인의 재산권과 신분권을 보장한 법률인데 근대시민사회는 인격 평등(人格平等)의 전제(前提)아래 소유권절대(所有權絕對)의 원칙과 계약자유(契約自由)의 원칙과 과실책임(過失責任)의 3대 원칙을 근본으로 한다. 그 중에서도 근대민법의 제1원칙이라고 여겨지는 소유권 절대의 원칙하에서는 소유권의 절대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유권의 남용이라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었다. 봉건시대에 인민의 권리가 충분히 행사되지 못하던 것을 타파한 근대시민사회에서는 권리는 어떠한 도덕적 속박에서도 벗어나 자유자재로 행사할 수 있게 하며 따라서 권리는 어떻게 행사하더라도 남용이 될 수 없다고 생각되었다. 근대사회에 있어서는 인민의 권리를 완전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과 도덕의 완전한 분리를 필요로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권리행사의 절대적 자유는 사회생활 그 자체에 지장을 가져오게 됨에 따라 권리남용의 원칙이 필요하게 되었다. 권리는 다만 권리를 가진 자만을 위하여 인정되었기보다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인정되었다는 사상이 대두되고 여기에서 법과 도덕은 다시 접근되어 권리는 남용하지 못하고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행사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서 되어 우리나라 민법에도 그것은 분명히 하였다. 그러므로 신(信)은 본래 윤리적인 규범이었으나 그것이 종교적 규범으로 승화하고 다시 나아가 일반 사회규범으로까지 확대

하게 되었다.

## VII. 신의 현대적 의의

### 1. 인간의 선량성의 회복

한마디로 믿음이라 하지만 믿음에는 첫째로 인간이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즉 자신(自信) 또는 신념(信念)이 있고 둘째로는 인간이 다른 사람에게 대하여 갖는 믿음 즉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신의(信義) 신뢰(信賴) 신망(信望) 신임(信任) 신용(信用) 등이 있으며 셋째로는 우주의 절대자에 대한 믿음으로 신앙(信仰)이 있다. 첫째의 인간 자신이 가지는 인도적(人道的) 믿음이고 둘째는 사회나 국가에 있어서의 인간과 인간 또는 인간과 집단 또는 집단과 집단 사이에서 가지는 지도적(地道的) 믿음이고 셋째는 우주의 절대자 즉 하느님이나 상제나 신에 대한 믿음으로 이것은 천도적(天道的) 믿음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인도적 믿음인 신념이나 지도적 믿음인 신의나 천도적 믿음인 신앙이 모두 상실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의 믿음이 모두 살아나야만 한다. 첫째로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여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난 것을 고마워하고 인간의 존엄성(尊嚴性)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의 기초 위에서 인간답게 살아야 한다. 다음으로는 사람은 사회에 대하여 믿음을 가져야만 사회생활을 하여 나갈 수 있고 사회생활에서 서로 믿지 못하면 사회생활은 깨어질 수밖에 없다. 끝으로 사람은 우주의 섭리(攝理)를 믿고 절대자의 존재와 그 신성성(神聖性)을 믿고 그 신성성에게 귀의(歸依)하여야만 비로소 인간의 선량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믿음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 자기 자신에 대한 신념이 굳어야만 사회에 대한 신의가 생기고 사회에 대한 신의가 굳어야만 절대자에 대한 신앙이 생긴다. 먼저 인간적인 믿음인 자신 또는 신념은 곧 인간의 선량성에 대한 믿음이고 인간의 선량성은 곧 양심(良心)을 믿는 것이다. 인간은 본래 태어날 적엔 선량하였고 모두가 양심을 가지고 있다. 이점에 있어서는 유교나 불교나 기독교 사이에 차이가 없다.



유교는 인(仁)을 근본으로 삼는데 인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며, 공자는 인이라는 것은 극기복례(克己復禮)라고 하였는데 자기를 이겨서 예로 돌아가는 것은 본래 인간은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의 본 마음을 버리고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게 됨으로 그 좋지 않은 생각을 버리면 저절로 착한 마음으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자기를 이긴다는 것은 본래 착한 마음, 인자한 마음 즉 이타(利他)심이 잠시 자기욕심이나 채우려는 즉 이기(利己)심에 갇혀 그 작용을 못하게 되므로 이 이기심을 제거하는 것이 바로 자기를 이기는 것이요 자기를 이기면 본래의 인자한 마음으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공자는 인간의 본성이 본래 착하다고 생각했다.

중용에 「천명을 성품이라 했다.(天命之謂性)」고 하였는데 천명은 가장 신성한 우주의 절대자의 명령이다. 성품은 인간의 본성으로 곧 양심이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양심은 신성한 우주 절대자의 명령이므로 선량하다. 천명은 만물을 화육(化育)시킴으로 어디에 편함이 있고 늘 자기를 버리고 전체 즉 다른 사람을 생각한다. 그런데 그 인간의 본마음이 잠깐 흐려지는 수가 있는데 그것은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심이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이 아니기 때문에 잠시 일어날 뿐 그 마음을 돌리면 인간의 선량선을 곧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공자의 인의사상은 중용의 천명설에 이르러 철학화(哲學化)되었고 맹자(孟子)에 이르러 사단설(四端說)은 인간은 날 때부터 측은지심(惻隱之心) 수오지심(羞惡之心) 사양지심(辭讓之心) 시비지심(是非之心)의 사단을 가지고 있어 인의예지(仁義禮智)의 바탕을 이룬다고 하였고 인간의 본성이 본래 착한 것을 구체적으로 실증(實證)하였다.

맹자는 인간의 성(性)은 천부적(天賦的)으로 선량하여 이것을 본심이라 하였고 그 본심이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양지(良知) 양능(良能)이 있다 하였다. 사람이 배우지 않고 능히 알 수 있는 것은 양지라고 하였다. 맹자가 말하는 본심이란 바로 양심을 말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맹자는 선험적양심론자(先驗的良心論者)로 칸트(Kant)의 정언적 명령(定言的命命)과 같은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맹자의 양지·양능설은 왕양명(王陽明)의 양지설(良知說)로 발전된다. 양지

라는 말은 양심의 본체에 안다(知)는 작용이 있음을 밝힌 것이다. 안다는 것은 상대방을 이해한다는 것인데 영어로 양심은 *consicence*라하고 독일어로 양심은 *gewissen*이라고 하는 것과 비슷하다. *consicence*는 *con*이란 말과 *sicence*라는 말이 합친 것인데 *con*이란 말은 「같이」라는 뜻이요 *science*는 「안다」는 뜻으로 *consicence*는 같이 안다는 뜻이다. *gewissen*은 *ge*라는 말과 *wissen*이란 말이 합친 것인데 *ge*는 「같이」라는 뜻이요 *wissen*은 「안다」는 뜻으로 상대방을 이해한다는 의미에서 양지와 비슷하다. 자기만 아는 것은 이기적(利己的)이지만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은 이타적(利他的)이다, 자기의 입장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처지를 바꾸어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는 것이 양지요 양심이요 *consicence*요 *gewissen*이다. 왕양명은 또 지행합일설(知行合一說)을 주장하여 행함이 없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심의 명령은 다만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실천하여야만 비로소 양심을 따르는 것으로 생각했다.

이 양심을 믿은 것이 자신(自信)이요 신념(信念)이다. 자기만의 이익이 아니라 상대방의 처지에서도 생각하여야하고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상대방의 처지에 서서 상대방에 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예(禮)다. 공자는 인(仁)이란 자기를 이기고 예에 돌아간다(克己復禮)라고 하고 또 인자(仁者)는 자기를 세우고자 하면 다른 사람을 세우고 자기가 달성코저 하면은 다른 사람을 달성시킨다고 한 것도 이 뜻으로 이해된다. 이같이 유교는 성선설에 입각하여 자기의 양심을 믿고 그 양심에 따르는 자신과 신념을 강조한다.

불교에서도 인간의 성품이 본래 착하여 불성(佛性)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그 불성이 잠깐 먼지에 가리워져서 인간이 선량성을 발휘하지 못하지만 그 가리워졌던 먼지를 털어버리면 인간의 본성의 선량성이 자각(自覺)되어 자기도 부처라는 대각(大覺)이 생긴다고 한다.

기독교에서도 인간은 본래 하느님과 같이 선량하게 창조되었지만은 악마의 유혹에 빠져 타락함으로써 그 선량성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하느님을 믿고 그 하느님의 힘에 의하여 악마를 물리치게 되면 다시 선량한 사람으로 회복된다고 한다. 유교나 불교나 기독교에서 인간의 본성이 본래 선량하다는 것을 다같이 말하고 있으므로 이제 그 선량성을 회복하여 자신과 신념을

강화하여야 한다.

## 2. 사회의 연대성의 강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란 말과 같이 인간은 개인적으로 고립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같이 공동생활을 하면서 산다.

그 공동생활권은 가정이나 이웃이나 직장이나 국가나 국제사회 등 여러 형태가 있지만 그 공동생활을 유지시키는 원동력은 다른 사람에 대한 믿음이다. 유교에서 인이라 하고 불교에서 자비라 하고 기독교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타인에 대한 믿음의 적극적 표현이다. 인의 마음이 있어야 타인을 믿을 수 있고, 자비의 마음이 있어야 타인을 믿을 수가 있고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타인을 믿을 수 있다. 믿음은 자기와 다른 사람이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일체감에서 우러난다. 인간으로서의 자신의 선량함을 믿으면 같은 인간으로서의 타인의 선량함도 믿게 되고 그 믿음으로 자기와 다른 사람이 하나가 된다. 자기와 타인과는 일체감과 연대감(連帶感)속에 사회생활의 근본규범으로 신의가 발생한다.

삼국유사(三國遺事)에 있는 단군고기(檀君古記)에 하늘나라(桓國)에 계신 하느님(桓因)의 아들 환웅(桓雄)이 하늘나라를 마다하고 자주 하늘아래의 지상을 생각하고 하늘나라의 신령님보다 인간세계의 사람들과 살기를 원한다(數意天下 貪求人世)고 되어 있다. 이것은 환웅이 하늘나라를 버리는 것으로 아버지 하느님에 대한 아들 환웅의 반역이다. 보통 같으면 아버지 되는 하느님이 그 아들되는 환웅에 대하여 자기를 배반하였다고 크게 노할 것이다. 그러나 단군고기에는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알았다.(父知子意)」라고 했다. 여기에는 평소부터 아버지 하느님이 그 아들 환웅에 대한 굳은 믿음이 있던 것을 의미하고 그 믿음은 곧 아들에 대한 사랑에서 시작된다. 하느님은 그 아들을 사랑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언뜻 보아 자기를 배반하는 것 같은 그 아들의 처신을 여러 가지로 생각한 끝에 그 아들의 참뜻을 이해하게 되고 그 참뜻이 결코 자기를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참뜻을 나타내기 위한 것임을 알게 된다. 그리하여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의 뜻대로 실현시켜준다. 이는 원래 우리민족이 하늘나라와 지상나라를 따로 보지 않

고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기본사상에 유래하는 것이다. 이것이 지상천국(地上天國)사상이고 신선(神仙)사상이다. 환경이 대단히 수려한 금수강산에 사는 우리 조상들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천국을 이룰 수 있고 살아서 천국에 사는 사람을 신선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아버지인 하느님은 그 아들 하나를 지상에 보내어 지상천국의 이상을 실현 시키고자 마음먹고 있었는데 그 아버지의 뜻을 아들이 알고 스스로 지상으로 가겠다고 하였고, 그 아들의 참뜻을 안 아버지가 그 아들의 소원을 들어 준 것이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사랑과 믿음에 잘 나타나 있다.

흔히 다른 종교에서는 천국만이 가치가 있고 지상국가는 가치가 없거나 심지어는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지상의 사회도 천국과 같은 이상사회를 이루고 살 수 있고 그러한 이상사회의 원동력은 사회에 대한 믿음이다. 사회에 대한 연대감이 모자라면 사회에 대한 불신이 늘어가고 불신이 있는 사회에는 행복이 있을 수 없다.

오늘날 사회에 불신풜조가 만연되어 있어 그것이 사회생활에 대한 실망을 주고 있다. 건전한 사회생활이 있는 곳에 사후의 영혼의 건전생활이 보장된다. 자신의 선량성을 믿는 동시에 타인의 선량성을 믿고 공존하는 규범이 신의이다. 공자가 백성이 정부를 믿지 않으면 국가는 도저히 성립할 수 없다(民無信不立)라고 한 것은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신의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오늘날의 사회의 불신풜조가 사라지지 않는 한 건전한 사회생활은 있을 수 없으며 그러한 불신풜조를 시정하는 데에는 사회의 연대성을 더욱 강화 시켜야하고 사회의 연대성은 자기를 믿는 것과 똑같이 타인을 믿는데에서 강화된다.

### 3. 우주의 신성성의 확인

자기자신에 대한 믿음, 타인에 대한 믿음이 서면 자연과 인간과 사회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진리나 절대자에 대한 믿음으로 이어진다.

우주나 지구나 인간에게는 만고불변의 보편적 절대적 진리가 있는 동시에 시대와 장소에 따라 그 모양을 달리하는 개별적 상대적인 진리가 있다.

만고불변의 절대적 진리가 있는냐 하는 문제는 유사 이래의 인류의 끊임없는 관심사였다. 그 절대적 진리를 체현(體現)하고 있는 존재를 하느님, 상제 또는 신이라고 한다면 과연 하느님이 계신가 하는 문제가 일어난다.

진리에는 인간에 관한 진리, 사회에 관한 진리, 자연에 관한 진리가 있다. 인간이라는 것이 그 본질이 무엇이나 하는 것은 인간에 관한 진리다. 인간에 관한 본질이 착하나 착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아직도 논쟁이 있지만 인간의 선량성이 흐려지는 수는 있어도 근원적으로 인간이 선량하다는 확인은 거의 절대적 진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다음에 사회에 관한 진리로서는 사회생활에 있어서 인간 서로 사이에 지켜야 할 규범으로 유교의 인이라던지 불교의 자비라던지 기독교의 사랑이라는 것이 이에 해당된다. 유교에서의 인은 자기를 이기는 것이요 불교에서의 자비는 자기를 깨닫는 것이요 기독교에서의 사랑은 자기를 버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이나 자비나 사랑은 모두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자기는 선량하지 못한 자기다. 본래 선량한 자기이지만 사회생활에 있어서는 선량하지 못한 욕심 때문에 본래 이타적인 것이 이기적으로 흐를 수도 있다.

인이나 자비나 사랑은 사회생활로 생기는 인간본래의 이타심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이나 자비나 사랑은 사회적 진리이지만 본래 인간이 선량하다는 인간적 진리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인간성은 변하지 않지만 사회는 시시각각으로 변한다. 그러므로 사회에 절대적 진리는 있을 수 없다. 인이나 자비나 사랑이라는 사회적 진리는 그 명목만 같은 것으로 유지되어 왔지만 그 내용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결코 동일하지는 않았다. 말하자면 사회적 진리는 상대적이다. 그러므로 인이나 자비나 사랑에는 인간의 선량성에 입각한 본래의 인이나 자비나 사랑과 같은 진정한 인간적 진리와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 다만 명목상으로만 인이나 자비나 사랑을 주장할 뿐이요 그 내용은 진실이 아니고 허위도 있을 수 있는 사회적 진리의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인간적 진리는 절대적이거나 사회적 진리는 상대적이다.

사회적 진리가 상대적인데 대하여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진리는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보편성이 있는 절대적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생각되어 왔다.

그것은 가시적(可視的)이고 반복되며 예외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며 자연법칙은 절대적 진리로 인정되어 있다. 지구가 둥글다던지 지구가 태양을 돈다는 자연법칙은 만고불변의 절대성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어 있다. 이렇게 예외 없이 만고불변하는 자연법칙에 대해서 사회적 진리는 사실적(事實的) 법칙(法則)이 아니다. 당위적(當爲的)인 규범(規範)이라고 구별하기도 한다. 사회적 진리인 사회규범은 상대적이나 자연적 진리인 자연법칙은 절대적인 것이 되는 것이 오늘날의 통념이다. 그러면 인간성이 선량하다는 인간적 진리는 사회규범과 같이 상대적 진리나 자연법칙과 같이 절대적 진리에 관해서는 상대적인 현상(現象)도 있지만 본질(本質)은 절대적이라고 생각된다. 우주를 주관하는 절대자로서의 하느님이나 상제나 신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신도 자연법칙과 같이 가시적이고 반복되고 예외가 없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신에 관해서 자연법칙처럼 보편성을 주장할 수 없는 단계이다. 현재 지구상에는 오직 자연법칙은 있지만 자연법칙과 따로 신이 없다는 무신론(無神論)도 무시할 수 없게 되어있다.

우주의 절대자가 초월적(超越的)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은 아직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성이 본래 선량하다는 인간적 진리를 절대적 진리로 믿고 인간의 존엄성을 확신하고 있다. 우주의 절대자에 관한 것은 자연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된다고 하여 부정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초월적(超越的)으로만 찾던 신을 인간의 본질에서 내재적(內在的)으로 찾아보면 그 존재를 확인할 수가 있다. 신이 초월적으로 존재하기보다는 인간의 선량성의 기초 위에 인간 내부에 내재해 있다는 내재적 신관은 인간의 본질에 입각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적 진리라고 생각할 수 있다. 증산은 절대적인 신을 인간에 내재해 있는 신성성(神聖性)에 결부시켜 천존(天尊) 지존(地尊)보다 인존(人尊)을 강조함으로써 인간의 신성성을 통한 우주와 우주의 절대자의 신성성을 확인시켰다. 증산에 있어서 우주의 절대자는 강일순(姜一淳)이라는 인간에게 화현됨으로써 우주의 절대자와 인간이 합일되고 인간이 선량한 것처럼 우주도 신성함을 확인시켰다. 우리는 인간이 선량하다는 자신을 가지고 사회가 연대성을 강화시키는 신의를 지키며 우주의 신성성은 인간내부에서 확인하는 신앙으로 살아나가야 할 것이다.